

옷 없어 물려입던 방열복 ‘소방 유물’ 되다

영광소방서 정상준 소방장

국립소방박물관 유물모집에 참여 소방대원 아버지 방열복 등 기증 “30년간 전남 지켜온 아버지 인생” 부자지간 소방원으로 한평생 활동

“고흥에서 작은 불이라도 나면 이 옷을 입고 부리나케 달려가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1980~90년대 의용소방대가 착용한 방열복이 소방유물로 기증됐다.

20일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 따르면 예방안전과에 근무하는 정상준 소방장이 자택 창고에서 발견한 의용소방대원인 아버지의 방열복을 소방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 기증했다.

정 소방장의 기증품은 방열복 상·하의, 헬멧, 장갑, 신발 등 방열장비와 당시 같이 사용한 무전기 4개 등 9점이다.

방열복은 주로 대형화재나 복사열이 강한 산업현장에서 인명구출 또는 소화 활동시 착용하는 의복이다. 소방대원들이 주로 입는 방화복 또한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방열복은 알루미늄을 코팅한 소재로



영광소방서에서 정상준 예방안전과 소방장이 지난 14일 고흥 의용소방대원인 아버지의 방열복을 소방유물로 기증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다.

복사열을 반사해 몸을 보호하는 데 주로 쓰인다. 현대식 방열복보다는 무게가 무겁고, 소재 또한 두꺼워 활동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방열복의 주인인 정동인 전 고흥의 용소방대장은 1990년 5월에 입대해 현재까지도 고흥 마을의 안전을 지켜오고 있다.

당시 소방장비나 의복의 보급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입대하자마자 선배가 입었던 방열복을 물려받아 착용하고 현장에 나섰다는 것이 정 전 대장의 설명이다.

그는 “1990년도 당시 나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고흥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사명감이 많이 입대했다. 지금처럼 새 의복을 입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방열복을 나눠입고 물려받으며 현장에 뛰어 들었다. 현재의 방화복·방열복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무겁고, 숨이 턱 막혀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방열복은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수 없어 답답했다”며 “2000년대 들어서 신 장비와 의복이 보급되자 옛 방열복은 필요가 없어졌지만 웬지 버리기 아쉬워 집 창고에 보관해왔는데 이번에 소방유물로 기증품을 접수받는다 소식 듣고 기꺼이 내놓았다”고 전했다.

정 전 대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난 2019년 고흥의 한 대형마트 화재와 2020년 윤호21병원 화재 현장 등을 오가며 의용소방대장으로서는 대원들을 진두지휘하고 인명구조에 앞장섰다.

아버지가 크고 작은 구호현장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같은 소방대원의 길을 걷게된 아들 정상준 소방장은 “오래전 화재 현장에서 군민을 구하던 장비인 만큼 이전 소방역사의 가치를 보여주는 유물로 기증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소방유물 접수는 오는 2025년에 건립 예정인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할 소방 유물을 수집하기 위함이다.

국립소방박물관은 소방유물의 보존 및 전시 연구 목적으로 경기도 광명시에 건립 예정이다.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 운동의 의미는 소방 관련 역사 자료 및 유물(소방도구 등)을 찾아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리고, 박물관 전시 및 관람을 통한 안전 문화 확산에 있다.

수집·기증 대상은 소방차와 장비, 안전모자, 배지와 기념품, 사진 등 소방과 관련한 모든 사료다. 기증 유물은 국립소방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돼 영구 보존·전시되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된다. 특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돼 관리된다.

현재까지 광주·전남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70건이, 전남에서는 568건이 접수됐다. 소방청은 이러한 유물에 대해 각종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시될 유물을 선정한다.

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소방유물자료관(<https://firemuseum.or.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소방청 생활안전과(044-205-7668)에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日 강제징용 생존자, 제3자 배상안 끝까지 ‘반대’

시민단체, 양금덕·이춘식씨 방문 두 사람 “나랏돈 안받겠다” 확고

전국단위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일제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를 만나 안부를 묻고 정부의 해법인 제3자 배상안에 대한 이들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600여개 전국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박석운 공동대표가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에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와 일본제철에 징용당한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이날 방문은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제3자 배상안을 발표한 이후 고령으로 건강이 여의치 않은 두 사람의 안부를 살피기 위함이다.

박 대표를 포함한 시경 순천 송광사 스님과 장현권 목사 등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의 양금덕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박 대표는 양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우리 마음의 표상이다”며 “할머니이 이끌어 주신 덕분에 국민들이 주저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참 고맙다”며 정부의 제3자 배상안에 대해 “돈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추잡스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싸워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양 할머니와의 짧은 만남을 마친 박 대표는 곧바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택을 방문했다. 그곳

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이 옳고 튼튼한 나라가 될 때까지 건강하겠다”며 박 대표의 손을 연신 쓰다듬었다.

이어 이 할아버지 또한 제3자 배상안 해법을 강요하는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에 사죄를 받고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짝짜꿍만 하고있다.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서 몇몇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사죄받지 못하고 몇 년째 같은 상황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 대표는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똑바른 목소리를 내며 정의를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속상한 마음이다”며 “할아버님이 버텨주시기에 힘낼 수 있고 사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다짐했다.



600여개 전국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박석운 공동대표가 20일 광주 서구 양동의 일제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자택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있다. 김혜인 기자

한편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피해자 15명 중 제3자 배상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은 현재 4명으로, 이

중 생존 피해자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2명이다. 김혜인 기자·전해연 인턴기자

2023 골목상권

미식브랜딩 아카데미



모집기간 6. 15.(목)~6. 30.(금)

모집대상 광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요식업자 ※ 도산동 소상공인 우선 선정

신청방법 방문: 광산구청 2층 시민경제과
온라인: 네이버폼 제출



오감상생 도루메길 만세챌린지



참여기간 6. 9.(금)~7. 31.(월)

- ① 3일 합계 1만보 이상 걷기
- ② 도산동 음식점 7천원 이상 이용 3회
- ③ QR코드 접속 후 걸음수 화면 영수증 업로드
- ④ 모바일 기프트콘 1만원권 수령

